



#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집단감염

### 사우나·종교시설·라이브카페 추가 확진 지속

30~31일 9명 추가... 31일 0시 기준 확진자 416명도 방역고삐 바짝... “역학조사 범위내 확진사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0일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1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주 20~30명씩 발생하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번주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우나, 성당, 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9명 확진자 추가=30일 하루 동안 9명(제주408-416번)의 확

진자가 발생했고, 31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어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1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30일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도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범위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된 확진자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한라사우나 관련 3명(409-413-414번) ▶김녕성당 관련

1명(410번) ▶7080라이브카페 관련 1명(412번) ▶도내 확진자 접촉 4명(408-411-415-416번)으로 파악됐다. 현재 7080 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는 56명,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75명, 김녕성당 관련 확진자는 32명이다. 지난 30일(주)내오피스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 감염은 없는 상태다. ▶일일 확진자 지난주 25.1명→이번주 12.3명=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총 33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최근 일일 10명 내외로 추가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12월 24-30일) 총

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12월 17-23일) 25.1명보다 51% 감소한 수치다. ▶제주 방역고삐 ‘바짝’=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 취약지로 언급되는 PC방, 키즈카페, 오락실·멀티방 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업종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빠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는 3일까지 도내 공공관광지 60개소를 임시 폐쇄하고 오를 33개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알림**

### 2021 한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2021 한라일보 신춘문을 통해 신인 작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시와 시조 부문에서 당선작을 배출했고 단편 소설 부문은 당선작 없는 가작이 나왔습니다. 제주를 넘어 한국 문단의 밝은 빛과 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b>시</b>	당선 <b>신윤주</b> (35, 제주시 일도2동) '도서관'
<b>시조</b>	당선 <b>김규학</b> (62,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폐교'
<b>소설</b>	가작 <b>차영일</b> (48, 울산시 남구 장생포교대로) '떠도는 도시'

•심사위원  
- 시 : 본심 - 허영선(시인) 문태준(시인) / 예심 - 강영란(시인) 현택훈(시인)  
- 시조 : 본심 - 김영기(시인) 고정국(시인) / 예심 - 김영숙(시인) 김정숙(시인)  
- 소설 : 본심 - 임철우(소설가) 김동윤(평론가) / 예심 - 문혜영(소설가) 조중연(소설가)

당선 소감과 심사평 10면, 시·시조 당선작 11면, 소설 가작 14-15면 게재

**한라일보**

## 코로나19 시국 대세 된 '비대면 졸업식' 집에서 부른 노래 “정든 교실아...”

### 화상으로 영상·메시지 전달 '졸업 꾸러미'는 순차적 배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면서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도남초등학교는 지난 30일 6학년 졸업생 128명을 대상으로 '제38회 졸업식'을 가졌다. >> 사진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6학년 5개 반 담임들이 자신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축하 영상 >졸업 기념영상 >졸업생 각각의 버킷리스트 응원하기 >학부모 졸업 축하 메시지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이다. 졸업앨범과 중학교 배정서 등이 담긴 '졸업 꾸러미'는 학생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배부했다. 도남초 관계자는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128명의 6학년 학생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졸업식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따르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졸업식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와 재학생, 외부인사의 참석을 제한하는 것이다. 3단계의 경우는 반드시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개최해야 한다. 동광초등학교도 지난 31일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진행했다. 송은범기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31일 제주항을 찾아 실종된 제32명민호 선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국기자

## 골든타임 지났는데, 선원들 어디에...

### 제32명민호 선원 시신 1구 발견... 실종 선원 6명은 오리무중

제주시 제주항 북서쪽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제32명민호(32t)의 한국인 승선원 시신 1구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31일 발견됐지만 나머지 선원 6명(한국인 3명·인도네시아인 3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는 사고 발생 후 선체가 좌초돼 있는 방파제를 찾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제주항 제3부두 터미널 게이트 앞 항내 수색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선원 김모(73·경남 사천시)씨로 확인됐다. 해경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나머지 실종 선원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색에 차질을 빚는 사이 실종자 구조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지나 버리고 말았다. 전날 해경은 사고 해역 수운을 토대로 실종자의 생존 가능 시간을 최대 33시간으로 예측했다. 최초 사고 신고는 제32명민호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지난 29일 오후 7시27분쯤 접수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1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체가 좌초돼 있는 방파제를 찾았다. 31일 오전 11시쯤 제주항 제2부두 방파제에 도착한 가족들은 높은 파도와 강한 눈바람 속에서 야속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열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좌초된 제32명민호의 파편은 찢긴 듯 날카로운 모습으로 방파제에 걸려 있었다. 한 가족은 이날 현장에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시신이 발견됐고 수습됐다는 기사는 이미 나왔는데, (우리는)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지문감식이라든지, 가족이 한 명씩 육안으로 확인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해경에 지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도네시아 선원 가족을 대신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가 현장을 찾았다.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가족들은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코로나19로 2주간 국내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실종된 선원 7명 중 3명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푸지 바스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는 “시신을 수습하면 최대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수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한림 선적 저인망어선 제32명민호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서귀포 성산항에서 출항해 제주시 한림항으로 향하다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곳은 날씨로 표류하다 30일 오전 3시47분쯤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한 뒤 좌초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책임지고 이익나게 해줄게” 토지 거래 사기 50대 징역형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 3305㎡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9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해당 임야는 상가 건축까지 가능하고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고가에 팔릴 수 있다”며 “책임 지고 평당 180만원에 되팔아 이익을 나게 해주겠다”고 현혹했지만 이 곳은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의 곳자랄 지역으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상민기자

謹賀新年

남과다-즐거워 한해 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회원 모두는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단체로서 최선을 다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  
회장 강지연 대의원회장 김경진

수석부회장 김용범	부회장 이권호	고현심	이석재	김원	부의장 김동규	박재남
총무이사 윤진호	법제이사 이태유	학술이사 이재천	대외협력이사 심재현			
총무이사 송대성	법제이사 오동준	학술이사 문이상	감사/중앙이사 이승희			
의무이사 이정훈	공보이사 박철민	재무이사 주현이	사무처장 오석호			
의무이사 정유남	공보이사 정구중	정보통신이사 장순봉	사무처간사 양은심			
보험이사 김창순	정책이사 박형근	정보통신이사 권태연				
보험이사 한승태	정책이사 이영일	특별사업이사 유현욱				

제주시 오라남로 45, TEL. 064)757-4640, FAX. 064)757-4590

謹賀新年

새해엔 사랑이 가득하소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원 모두는 2021년 새해에도 제주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DA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장은식

부회장 김영호	부회장 김의신	부회장 문장봉
총무이사 강철훈	재무이사 주현우	치무이사 권영우
법제이사 현승돈	공보이사 김대준	보험이사 박상대
재무이사 권규남	학술이사 김수범	국제이사 양지윤
정보통신이사 임한술	문화복지이사 정희경	대외협력이사 고동균
지역이사 김성수	감사 부경돈	감사 김종림